

열린세상



정진탄 뉴미디어본부장 겸 논설위원

언젠가 전국 단위 언론단체 대표를 서울이 아닌 지방 언론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당시 행사장에 모인 참석자들이 헛웃음과 비웃음을 보냈다고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뜻으로 무슨 지방 언론이 힘과 권위가 있어 말겠다는 것이나, 망발을 일삼지 말라는 것이었다. 당시 지방 언론을 깔아뭉개고 중앙 언론 출신이 맡았으며, 지방 언론 관계자들은 불쾌하지만 받아들여야 했다고 한다.

지방 언론·의회 관심 없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방 언론은 중앙 언론에 비하면 규모와 인력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다. 신문 발행부수 또는 지면 구성을 보아도 그렇고, 방송 편성과 질을 보아도 수궁이 간다. 수도권에서 보도하는 뉴스 콘텐츠와 지방의 그것은 일반 독자나 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런 지방 언론을 지역민이 잘 찾지 않는 것을 뭐라 할 수 없다.

지방 행정기관은 불가피하게 지역 관련 보도가 나가므로 지방 신문을 안 볼 수 없지만 그 이외의 뉴스와 정보를 위해선 지방 신문을 곧잘 외면한다. 광주지역 한 간부공무원은 중앙 언론을 봐야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다며 지방 신문, 지방 언론을 경원시했다. 사실 지방 언론이 중앙 소식을 고사하고 지

중앙으로 눈 돌리는 도시

방 내에 돌아가고 있는 사정이라도 잘 보도하고 취재하는지 의문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인이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데다, 특히 광주지역은 정치적 '구국의 결단'을 많이 하는 곳이어서 관심사가 중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지방정치, 지방의회에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의 의원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잘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일반적인 정치 얘기이고, 의료 등 실생활에서 느끼는 중앙에 대한 예속은 심하다. 중대 질병에 걸리거나 그럴 위험이 있으면 서울 일류 병원으로 진료를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일 것이다.

민선 8기를 맞아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니 기대감이 높다. 복합쇼핑몰 유치가 지역 이슈라고 하며 윤석열 정부가 나서는데 반대는 세력이 있지만, 사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복합쇼핑몰 이슈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광주 내부에서 유치 노력은 하세월이었을 것이다. 앞으로 유체에 반대하는 세력이 어떤 식으로 막아설지 모를 일이고, 그 규모나 위치 선정 등으로 엄청난 지역민의 에너지가 소모될 것이다. 시민들이 실제 복합쇼핑몰을 걸으며 그 분위기를 향유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원정쇼핑을 반복해야 하는 처지다.

뭐니 뭐니 해도 교육 여건과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기회를 만들어서 서울로 가야 한다는 지역민의 열망이 강하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일류대학으로 자녀를 보내고 싶어도 이를 책임져줄 경쟁력 있는 고교가 없어 일찍이 중앙의 유명 고교를 찾아야 하는 수교로움이 요구되는 도시다. 좀 뼈빠지게 말하면 고위 공직자나 의사, 엘리트 가정은 자기 자식을 인기 고교로 유학 보내놓고선 다른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지방에서 교육을 받으라고 권장하는 위선이 필요한 곳이다.

광주는 다른 지방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역사적으로, 정신적으로 입장이 무거운 지역이어서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급급 관공이 어럽다고들 한다. 특히 특색 없는 광주 관광에 실망하는 전국 관광객은 인근 전남지역으로 힐링 장소를 찾아 떠난다. 5성급 호텔이 없는 광주는 어울림만한 비즈니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저런 상태로 유지해간다.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 때문인지, 일각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조작) 때문인지 몰라도 여하튼 광주는 광역시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

광역시 기능 취약한 광주

그런데 웹 일인지 도시 거리에는 고급 수입차들이 많다. 그리고 차 크기도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인기를 끈다. 왜 광주사람들은 크고 비싼 수입차를 좋아하는 것일까. 민주인권 도시와는 언뜻 격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시민사회 일부에선 상업성을 거부하거나 거의 죄악시하는 성향을 엿볼 수 있는데 한쪽에선 '티내기'의 대명사인 마이크의 고급화 추구를 상업성을 표출한다. 혹시 가볼 만한 곳이 없는 도시여서 내 안의 세상, 수입차량 내부에서나마 유럽풍, 미국풍 문화의 환상에 젖어보려는 것은 아닐까.

정치적으로 대단한 진보성을 드러내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내심 상업성을 열심히 추구하는 도시, 중앙 정치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자지정부에는 냉담하다가 자신의 이권이 걸릴 때는 적극 참여하는 도시, 다수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일부 강성 발언이 특색하는 도시, 이런 속사정을 좀 아는 시민들은 군소리 없이 일찍 자기 살길을 찾아 중앙으로 갔거나 최소한 자식들이라도 그렇게 보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도시, 우리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다.

물 부족 국가의 대책

둘 부피만큼 물을 절약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4대 강에 22조원을 들여 16개의 보를 만들어 물을 저장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 농도는 물 부족이 해결된 전전후 농도가 돼 모내기 철인 6월에 전국적으로 모내기는 기계를 이용해 거의 끝낸 실정이다.

그러나 논이 아닌 밭작물은 올해 들어 봄철인 3-5월과 여름철인 6월까지 강수량이 아주 적어 밭작물이 타들어 가고 있으며 도지사방은 식수난에도 비상이 걸렸다.

필자는 교직 근무 때 섬지방인 흥도에 근무한 바 있다. 이곳 주민들은 빗물을 저장해 이용하며 물 절약에 남다른 관심을 두고 생활하고 있었다. 한 번 사용한 물은 재활용하고 있었으며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썼다.

올해 들어 강수량이 줄어들며 따라 상수원인 저수지의 물이 바닥나고 있다. 6월 중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있을 때 아껴 쓰자'라는 말이 있다. 평소에도 물을 아껴 써서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광주시 진월동에 거주하는 93세의 서영섭씨는 발명가로서 물 절약에 관한 관심을 두고 지난 5년간 가정에서 물 절약을 위해 물 소비가 많

은 화장실 변기 물통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12 l의 변기 물통에서 4 l 만으로 배설물을 완전히 처리하는 양변기 물 절약기구를 제작하여 발명특허를 획득했다. 이것을 설치하여 물 절약이 확인되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가정에서 물 절약은 수도료 절감효과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절감이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국은 이러한 물 절약 연구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수차례 건의서를 출원했으나 정부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물 부족 국가의 해결에 관한 관심을 두고 대책을 세워 서영섭씨의 물 절약에 관한 연구를 수용하여 실천하고, 정부 차원에서 물 절약 연구로 시급한 물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고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다 과학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이미 설치된 4대 강을 비롯한 여러 댐과 보의 물관리를 추진했으면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교통법규 준수하자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범칙금 6만원(보호구역 12만원)과 벌점 10점(보호구역 20점)이 부여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운전하는 순간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 운전 문화를 확산해 교통사고 없는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 /문소희 보성경찰서 경무과 경장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광주형 일자리' 경쟁력 지속 강구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모터스(GGM) 현장을 방문해 주거와 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강 시장은 "정부와 광주시가 노동자 여러분과 맺었던 약속, 그 사회적 합의 이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를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공식 행보로 먼저 GGM을 향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는다. 캐스퍼 양산에 들어가면서 그 진가를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노동자들의 사회적 협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일부 직원이 사업장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문에 주택 건립 등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 시장이 GGM을 방문한 것도 이 같은 사안의 시급함과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동복지프로그램 일환으로 지급되는 주거지원 20만원에 대해 노사민정과

협의해 대상과 액수를 더욱 넓히겠다"며 사기 진작책을 제시했다. 노사 간에 맺은 합의 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더욱이 광주형 일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GGM이 태동하기 전 노사 간 줄다리기와 현격한 입장 차이로 파국 직전까지 갔다. 이를 딛고 일어난 광주형 일자리는 성공 가도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 자동차 시장의 경기는 물론이거니와 보다 근본적으로 노사 간 약속한 공동복지기금과 주거비 지원, 주택 공급 등 사회적 임금이 보장되지 못하면 노동자의 삶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그 부작용은 지역 경제에 바로 미친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시종 2인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메카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7조원을 투입해 특화단지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경제를 이끄는 총아이다. 경쟁력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남도 동남아 수출 공략 기대 크다

전남도가 최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태국과 싱가포르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 222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계약 성과를 거둬 기쁨이 더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완화로 인적 교류가 원활해져 마케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해 태국·싱가포르 상담을 진행해 왔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농수산물기업 11개사와 화장품 등 공산품 4개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6개 참가기업이 총 7건, 22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했다. 지난 6월 태국 수출상담회에서 5개사가 5건, 210만 달러를, 같은 달 싱가포르 수출상담회에서 2개사가 2건, 12만 달러의 성과를 냈다.

태국에선 ㈜에이티엔지알로에유로, 해남고구마협동조합 고구마말랭이, 골든힐 멀치·해조류,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 유자음료, 레오바이오 헬당축정기 등이 기회를 잡았다. 싱가포르에선 다시마전복수산 전복, 해남고구마협동조합 고구마 등이 계약을 했

다. 이곳에선 2021년 장보고 한상 어워드 대상 수상한 정영수 CJ그룹 글로벌 경영고문인 해남고구마협동조합과 개별 미팅을 갖고 2만 달러 상당의 해남고구마 900상자를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남도 관계자는 전했다.

더불어 1대1 상담을 진행해 2,494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둬 태국·싱가포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제품 종류별로 록바이오텍, ㈜메사코사, ㈜이노플렉스가 화장품류를, 북하특목사업단(주)이 젓갈류를, 네이처퓨어코리아가 건강기능식품을, ㈜농농프레쉬, 좋은영농조합법인, ㈜위더스에프앤비, 레인보우팜(주)이 식품류를 출품했다.

전남도는 동남아시아 가운데 태국과 싱가포르의 민간소비가 개선돼 전남도 누적 수출액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도는 수출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져 상승세를 지속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류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성과를 거둔 셈이어서 더욱 반갑다.

정부 경제정책에 '서민' 없다

기지수첩



오지현

경제부 기자

'6월 소비자물가 6% 상승... IMF 이후 24년 만 최대 폭', '한은 사상 첫 '3연속 인상·빅스텝 가능성' ...

전 세계가 경제적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낮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물가, 환율, 금리 등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심각한 사태가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물가, 물가, 환율 인상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서민들의 몫이다. 이에 윤 정부는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부가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에서 '서민'은 없다.

지난달 16일 열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감세'. 추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 중 대표적인 예로는 법인세가 있다. 윤 정부는 감세를 통해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25%p에서 22%p로 3%p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최고세율은 3,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의 0.01%로 총 80곳 정도. 사실상 제벌을 위한 정책이다.

이 밖에도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조세정책도 발표했으나, 모두 다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과 관련,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앞세워 정부가 연일 임금인상 자체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을 보전할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앞장서 막으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윤 정부는 과연 지금이 경제 성장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 타이밍인지 고민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전세계를 덮친 지금, '성장'만을 외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서민들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기고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역대 현명한 정치지도자는 치산치수 사업에 관심을 두고 추진해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했다. 1차 산업인 농업이 주 산업이었던 시대에는 해마다 가뭄으로 인한 걱정이 큰 문제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산림녹화사업에 힘써 벌거숭이 산을 없앴으며, 전국 4대강 유역에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홍수 피해를 막았다. 또 용수로를 만들고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이용해 농업용수를 확보했다. 물 부족으로 모내기를 못 하는 천수답을 없앴으며, 한 방울의 물도 아껴 쓰기 위해 가정에서는 화장실의 변기 물통에 벽돌을 한 장씩 넣어 벽

독자광장

누구나 한 번쯤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나 보도가 없는 도로를 지나다닐 때,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2,900명, 이 중 보행자 사망자는 1,009명으로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기준을 확대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된다.

먼저,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던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